

“ 무슨 권세로? ”

■ 이종윤 원로목사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고 힐문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무슨 권세로 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 년 초에 곰의 발바닥을 푹 과먹었더니 한 해 동안 그 힘으로 산다는 이가 있다. 젊은 시절 운동으로 단련된 근력으로 산다는 이도 있다. 사돈의 8촌이 도와줘서 그 힘으로 산다고 하는 이도 있다. 돈의 힘, 지식의 힘, 권력, 군대의 힘으로 개인과 가정과 국가가 안녕을 보장받고 지탱해 간다는 생각을 가진 이도 있다. 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아서 힘의 대결(power struggle)을 통해 더 강한 힘을 가진 이가 더 작은 힘을 가진 이를 짓누르고 승리자가 된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세상의 힘에 의한 심한 핍박을 받았으나 오히려 더 왕성하게 부흥했다. 도대체 교회는 무슨 힘을 가졌기에 환난과 핍박도 교회를 죽이지 못했을까?

헤롯의 권세

초대교회 시대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유대교에 입문하고 할례를 받고 유대교 전통을 답습토록 했다. 그러나 집사 스테반은 산헤드린에서 유대인들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며 항상 성령을 거스르고 의인을 잡아 죽인 살인자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은 자로 맹공을 가했다. 그 결과 스테반은 순교자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계속 확장되고 널리 퍼져나갔다. 초대교회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야고보까지 살해되었다. 헤롯 아그립바 1세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야고보를 잡아 죽였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자 그는 베드로까지 체포하고 죽이려 했다. 헤롯의 불의한 권세는 미친 사람 손에 들려진 칼과 같아 그 결과가 엄청났다. 유대인 600만 명이 가스 챔버에 넣어 살해한 아돌프 히틀러, 3,000만 명의 생명을 직·간접으로 희생시킨 구소련의 스탈린, 자기 백성 300만 명을 아사시킨 북한의 김정일 같은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자기 욕심과 목적을 위해 오용하거나 남용한 이들이다. 이들은 정의가 힘이라 믿는 것이 아니라 힘이 정의라고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권세는 하나님에 의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신앙의 힘

사도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가르쳤다. 헤롯의 칼에 죽임 받기 전날 밤 그는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깊은 잠이 들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긴 베드로는 죽고 사는 것이나 원수들이 두렵지 않았다. 잠자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천사가 쳐 깨워 쇠사슬을 풀어주고 따라오라 하며 옥문이 저절로 열려 그를 한 거리로 끌어내고 천사는 떠났다. 베드로는 비로소 주께서 하신 줄 알았다고 했다. 자연세계에서 초자연적 능력을 믿는 신앙의 힘은 실로 막강하다. 같은 박해와 환란 속에서 야고보는 순교자가 되었고 베드로는 투옥되었다가 자유인이 되었다. 베드로가 할 일이 남았기 때문이라 설명해서는 안 된다. 사도행전 12장 이후에는 베드로의 이름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결국 어떤 이는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떤 이는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 유익을 주는 신앙의 힘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

기도의 힘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그를 위해 교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돈 문치를 싸들고 권력자를 찾아 다녀야할 법한데 그런 돈도 없고 설사 있다 해도 구차하게 그런 짓은 하지 않았다. 성도들은 전기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열렬히 같은 제목으로 기도했다. 기도의 힘은 과연 위력적이었다. 베드로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찾아 온 것이다. 그들은 기도했지만 믿지를 못하고 베드로의 보고에 미쳤다 했다. 아니면 그의 천사가 온 것일 것이라 했다. 우리의 작은 기도소리를 우리 하나님은 무시하거나 못들은 체 하지 않으신다. 오늘도 우리는 초자연적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힘과 책무기보다 더 강력한 기도의 무기를 갖고 살 수 있는 성도가 되자.

-한국장로신문 2014년 10월 11일 발췌-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9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 풍성한 가을에 아름다운 열매를 더욱 소망하는 마음으로 온 성도들이 주일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말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순례자에 실린 추석 가정예배 가이드를 통해 가족예배를 드리시며 은혜 나누시고, 가족, 친지들과의 만남의 시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전도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다시 시작되는 성경대학과 열린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각자 신앙의 성숙을 추구하고, 이웃과 함께 하는 사랑의 바자를 통하여 성도들 사이의 만남과 섬김의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일 1,2,3부 및 찬양예배 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 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20904_sermon.jpg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	---	---

부 목 사 장석남 조원영 안용근 조동수 김익환
전도사 박미라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이대원 **교육전도사** 허은 정기성 김예지 **협동목사** 심우진 전재홍 양정호
선 교 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리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프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도,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쁘도, 보디소프,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전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Senior Pastor 손 달 익 Rev. Son , Dal-ig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 어디에 사시겠습니까? ”

■ 고린도후서 5:1-10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눅 9:58)라고 하셨습니다. 머리 굴 없는 빈손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1절)고 했습니다. 바울 역시 이 세상에서는 작은 육신을 낳힐 한 평 거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화려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닌 ‘머리 둘 곳도 없이 살면서도 하늘의 집을 바라보는 삶을 산 사람들’에 의해 발전과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1. 죽음을 기억하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말씀은 겉사람인 육신은 낡아지고 노쇠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의 날이 오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살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나는 예외일 것’ 같은 자세로 사는 것입니다. 둘째, 허무에 빠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마치 죽음이 자기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죽음이 결론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현재의 삶을 육체의 소욕대로 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매일 죽음에 임박한 환난과 위험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허탄한 생각에 빠지거나 죽음이 두려워 신앙과 양심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빌 1:20-22) 이 땅의 장막집인 우리 육체가 무너지면 영원한 하늘의 집이 우리를 기다림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죽음을 넘어서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2. 생사의 바른 가치관을 가진 삶을 살아야

바울은 이 세상의 삶은 장막에 거하는 것으로, 죽음 이후의 삶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장막이 임시적 거처이면 집은 항구적 거처입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사무엘로부터 ‘차기 이스라엘 왕’으로 임명 받았습니다. 미갈과 결혼하여 사울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도, 왕의 사위라는 신분도, 백성들의 노래 찬찬도 그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 때 그를 품고 지켜준 것은 이 세상 장막 같은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지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장막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장막집이 완전히 무너질 때가 오는데 그 때는 하늘의 집, 하나님께서 만드신 집으로 가는 것이라’고 밝혀줍니다. 이곳에 살 때도 세상의 장막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아야 하고 이 장막을 떠날 때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세상 살면서 서러워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실망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3. 소망 있는 인생으로 살아야

바울이 제시하는 죽음을 극복하는 삶의 세 번째 요소는 영원한 소망입니다. 바울은 늘 두 가지 소망을 고백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세상 삶을 마친 후 주님의 칭찬 듣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딤후 4:7,8) 이런 소망과 확신은 하나님께 충성한 훌륭한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재의 삶에 전력을 다하여 살게 됩니다. 두 번째 바울의 소망은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는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빌 3:10,11) 이 부활신앙이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케 하고 초연한 삶을 살게 하시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소망은 세상 삶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칭찬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삶을 지니고 이 세상의 삶을 오직 하나님 영광 위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일예배

찬양예배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김익환 목사	오치열 장로
II 오전 11시	조원영 목사	오운걸 장로
III 오후 2시	장석남 목사	장석남 목사

오후 4시 30분 · 인도: 전재홍 목사, 설교: 손달익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149:1 인 도 자
 찬 송 38 다 함 께
 기 도 오병호 집사
 찬 송 361(480) 다 함 께
 성 경 왕상 3:1-15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솔로몬의 제사와 기도” ... 설 교 자
 * 찬 송 365(484)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시 84:3-4...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9(1절)...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13(시 23)...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419(478)...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고후 5:1-10...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어디에 사시겠습니까?”... 손달익 목사
 * 찬 송 Hymn438(495)...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인도: 장석남 목사
 II부 오후 7시 ·설교: 손달익 목사
 기 도 ... I부: 김희정 권사 II 박은영 권사
 부:
 성 경 왕상 3:16-28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지혜의 근원” 설 교 자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양언·박수강·김복희2
 설 교 손달익, 김익환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회소식

모임

- 바자 준비 모임 / 4일(주일) 오후 12시30분 802호
- 리브가전도회 월례회 모임 / 4일(주일) 3부 예배 후 502호
- 정기당회 / 7일(수) 수요 2부 예배 후 402호

알림

- 101호 예배**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 102호 예배**
소망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10분-11시
-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501호 예배**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601호 예배 / 부서 모임**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2호 부서 모임**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10분 · 오후 12시10분
- 603호 부서 모임**
사랑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9호 부서 모임**
세례교육부 : 주일 오후 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701호 예배**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702호 예배**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706호 예배**
유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새가족소개

성 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성 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김종태	3-2	뵤드로	본인	김수만	3-2	아브라함	본인

12. 세례식 신청 - 금년도 네번째 세례식인 10월 세례(세례, 입교, 개종, 유아세례)식이 10월 16일(주일) 찬양예배 시 있습니다.
 - 세례 청원서 작성 및 신청 마감: 9월 17일(토)
 - 세례교육: 4주교육(9/18, 9/25, 10/2, 10/9일) 낮 12시 30분 609호
 - 세례문답: 10월 9일(주일) 오후 1시 30분 609호
 *입교와 유아세례 신청: 10월 2일(주일)
 *입교와 유아세례 교육: 10월 9일(주일) 낮 12시 30분 609호
 *신청접수처 : 교육부서 및 교회 사무국
 *기타 궁금한 사항은(세례교육부 010-7743-3223)로 문의바람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새벽기도
1,525명	503명	2,028명	376명	1,957명



희망의 목적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아브라함은 성취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희망을 갖고 살았다.

그가 무엇을 희망했느냐보다는 그 희망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를 물어야 한다.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야 한다는 믿음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최근 우리 사회는 매우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에 먹구름이 낀 상황에서 희망의 햇빛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곤두박질 치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희망이 없다고 수수방관만 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하는 민족적 기도가 필요한 때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오늘의 고난을 타개하자.

-이중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결유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합시다.

에너지절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오시다.

주일성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서지원	장희원	윤주일	가브리엘		
II부	할렐루야	최유현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부	임마누엘	유태왕	전지희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박래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고후 5:1)		
수요1부	은 빛	박래경	김윤지	홍혜란	금주의			
수요II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성구			